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 Collection_Opening Hacking Mining

권혜인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은 미술관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소장작품 컬렉션에 접근하는 방식을 실험적으로 모델링하여 기존의 컬렉션 해석과 감상,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차별적 의미를 발생시키고자 마련되었다. 비대면 상황에서 강화되고 있는 온라인 체계를 바탕으로 컬렉션을 새로이 들여다보아야할 필요와 함께 네트워크형 미술관으로의 전환을 앞둔 서울시립미술관이 미술관의 근간인 컬렉션에 대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연구를 진행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전시는 대표작이나 주제 중심이 아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우선 채굴-연구 비평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컬렉션 아이덴티티와 미래 방향성을 “채굴”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대 소장작품과 만나는 경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관객과 작가가 주도적으로 소장작품을 “해킹”하여 감상과 가치의 문제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해킹-배움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장작품 관리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자만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의 소장작품 관리시스템을 오프라인 전시장으로 “오픈”하여 그 기준과 체계를 그려내는 한편 그것의 틈이 만들어내는 미술의 본질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소장작품 컬렉션을 만들어나가고, 후속 연구에 대한 단초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전시가 타 기관과의 차이를 만들어나가려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실험이자 SeMA 컬렉션이 국내외 어떤 지형과 맥락 안에서 위치하고 역할하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해킹-배움의 프로젝트

권혜인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해킹-배움의 프로젝트는 미술관을 구동하는 가장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관객'과 '작가'가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컬렉션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며 특히 온라인 체계 안에서 감상 방식과 전통적 가치 위계를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주로 수장고에 보관되며 가끔 전시로 공개되는 소장작품 컬렉션은 온라인에서도 대부분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똑같은 형태의 이미지와 캡션, 설명으로 게시된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소장품과 이미지는 온라인 특성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클 뿐더러 탈맥락, 낙차, 분절 시점 같은 특성이 더해지기도 한다. 즉 가치의 감각과 기준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관객과 작가가 '해킹'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감상 매커니즘과 경로를 재구성해보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주체는, 작품의 제작과 의미 발생에 가장 맞닿아 있는 관객과 작가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사용한 '해킹'은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공유,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닫혀있던 것을 열어 정보를 새롭게 활용하고, 지배적 기술을 역설계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작품들은 관객 각자의 위치에서 향기와 함께 소장작품을 감상하면서 '지금 여기'로 작품에 대한 환경과 감각, 감정을 소환하기도 하고, AR 기술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전시를 융합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술관과 작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온라인에서 개인의 작품 소장과 소유의 문제나 온라인 저자성에 대해 환기시켜주기도 한다. 또한 관객들이 중요한 작품을 선정해보면서 작품의 위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전시기간 중 전시장에 설치하기도 한다. 가상현실(VR)에서 작품의 제작과 감상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경험해볼 수 있는 소장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작품 감상 방법들과 함께 전시기간 중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참여과정 등이 공유되고, 서로 나눈 논의들이 수합되어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관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본 프로젝트가 관객과

작가, 미술관이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이자, 서로에게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원고는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021.01.26 ~ 2021.04.11.)의 도록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2021)에 수록되었습니다.

© 작가, 저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에 수록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 저자,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으며, 저작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